

아동의 자기지각 및 대인지각과 사회적 선호도와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lf and Interpersonal Perceptions, and Social Preference

에딘버러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박사후연수과정 황 옥 경

Dept. of Social Works, Edinburgh University
Post-doctoral Researcher: Hwang, Ock-Kyeung

〈목 차〉

- | | |
|------------|-------------|
| I. 서 론 | IV. 결론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참고문헌 |
| III. 연구방법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the children's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parent, family, and peers) and self are related to social prefer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25 children of 5th and 6th grade in 4 primary schools in Taejon.

Social preference was highly correlated with perceptions of peer and of father. The direct path between boys' perceptions of parent/family and peer ratings of social preference was no longer significant, whereas there was a significant path mediated by their perceptions of self. This suggests that boys perceptions of self are mediating variables between the perceptions of parent/family and their peer acceptance.

This study has found that both boys' and girls' peer representations were established for the role as mediators between parents/family representations and peer ratings of social preference. In addition, negative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we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increased social impairment, and less positive status in the peer groups.

*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근래들어 "관계양식(mode of linkage)"이나 "수행기제(carrier mechanism)"에 대한 관심과 과거에 대인관계를 맺었던 경험이 현재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Baldwin, 1992)이 밝혀지면서 내적기제(internal mechanism)가 또래관계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가족생활 경험과 아동의 또래역량간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잠재적 중개변인으로서의 대인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연구의 초점을 두게 됨으로써 특정 발달영역에 미치는 대인지각의 효과보다는 다양한 대인지각들이 서로 어떠한 과정으로 연결되어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유도하게 되는 지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게 되었다. 즉 단일차원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특정 행동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또래관계를 이해하기 보다는 아동의 내적기제가 어떠한 양상으로 또래관계에 작용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한 대인관계의 경험을 통해 내재화된 지각의 유형이 다른 대인관계로 일반화되는가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는 Bowlby(1973)의 "내적 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라는 개념과, 사회인지 이론가들의 "대인관계적(interpersonal: Safran, 1990)"이라거나 "관계적(relational: Baldwin, 1992)"이라는 개념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아동이 대인관계를 맺었던 경험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지각, 추론을 발달시키고, 이는 실제 행동으로 표현되므로(Westen, 1991)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재화시킨 지각을 토대로 아동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각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대인지각은 자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일반화된 정보를 주는 지식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을 유도하는 조직화된 체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 가족과 또래관계의 연관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각 대인지각의 기여양상과 관련한 연구는

매우 부진하다. 이는 또래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아동 행동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자기(Bell-Dolan, Foster, & Sikora, 1989), 또래(Hartup, 1983)나 부모(Patterson, Kupersmidt, Griesler, 1990) 중 어느 특정 대상으로 지각의 대상을 한정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래역량의 발달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대인지각에 대한 정보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초기 가족과의 경험은 자기 효능감, 정서적 이해(Cassidy, Parke, Butkovsky, & Braungart, 1992)와 같은 인지적 평가나 아동의 공격성(MacKinnon-Lewis, Volling, Lamd, Dechman, Rabiner, & Curter, 1994) 등의 사회적 행동 기제를 통해서 또래역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을 뿐이다.

특히 국내에서 진행된 부모, 가족과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는 앞서 제기한 연구의 미진함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행동특성을 설명하거나(예: 정영인, 1988) 또래지위를 결정하는 환경요소(정미자, 1995)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이들 변인의 독립적 영향을 밝혀 오던 종래의 연구형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사회적 행동이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아동의 내재화된 지각체계의 흐름을 보다 포괄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동에게 있어 중요한 타자인 부모, 가족, 또래, 그리고 자기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망라되는 연구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아동의 자기지각 및 각 대인지각의 기여양상을 살펴보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자기지각과 또래지각에 영향을 미쳐 이것이 다시 아동의 사회적 선호도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사회적 선호도에 대해 자기지각과 또래지각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아동의 대인지각 체계의 흐름에 대한 일차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감정, 사고, 행동은 경험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Elicker, Englund, & Sroufe, 1992), 본 연구결과는

대인부적응 아동의 상담, 치료현장에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실증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 1) 부모/가족, 또래, 그리고 자기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또래지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 2) 부모/가족, 또래, 그리고 자기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사회적 선호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3) 부모/가족, 또래, 그리고 자기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사회적 선호도에 어떠한 양상으로 기여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자기지각 및 대인지각과 사회적 선호도의 관계

또래지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아동의 행동은 대인지각의 영향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래 관계에 대한 대인지각의 기여양상을 탐색한 연구는 사실상 찾아 보기 어렵다. 특히 부모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관계의 상관은 여러 연구에서 발견되었지만, 부모 양육행동을 구분하여 평가하거나, 대인지각의 일반화 경향성과 또래관계의 연관성을 탐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부모, 가족과 또래지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가족의 특성(Ladd, 1991)이나 부모 양육행동(Black & Logan., 1995; Hart, DeWolf, Wozniak, & Burt, 1992), 그리고 또래관계에 대한 부모의 직접 개입 내지는 참여(Ladd & Golter, 1988)가 아동의 또래관계와 관련이 있는 지를 보고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또래관계와 부모 양육행동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부모와 자녀의 행동적 교류와 유형이 또래수용에 미치는 효과를 주로 연구해 왔을 지라도, 또래수용이나 거부를 촉진하는 중요한 한 요인이 부모(Putallaz & Heflin, 1990)와 가족과의 초기 경험이라는 데에는 많은 연구자들이(Feldman & Dodge, 1990) 동의한다. 특히 대인관계 역량의 근원과 사회

적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초기 증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가족의 영향력에 관심을 기울이고(Cohn, et al., 1991; Ladd, 1992), 가족은 아동에게 사회적지지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관계이며 가족지지가 아동의 사회 적응에 중요한 변인임을 밝혀왔다(Buhrmester & Furman, 1987).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 가족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자기와 또래에 대한 지각으로 전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이 애착과 사회인지이론의 내재화된 지각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능하며, 자기와 또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또래지위 형성에 있어서 중개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 여 아동의 부모나 가족의 영향에 대한 수용성 내지는 민감성에 차이가 있어 대체로 아들보다 딸들이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Richard, Gitelson, Patterson, & Hurtig, 1991)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남, 여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또래관계의 차이를 가져오는 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지각 중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남, 여 아동의 지각을 따로 분석하여 사회적 선호도와와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동의 자신에 대한 지각 또한 또래거부와 높은 상관을 갖고 있는데(White & Kinster, 1992), Renshaw와 Asher(1983)는 또래거부를 야기하는 여러가지 원인 중 보다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라고 보았다. 즉 자신을 또래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동이 아무리 사회적 상호작용에 맞는 적합한 책략을 갖고 있을 지라도 아동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거부아동은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낮고 또래에 의해 자신이 수용되고 인기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Boulton & Smith, 1994)를 하는 반면에, 인기아동은 보다 긍정적으로 자기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ll-Dolan, et al., 1989).

인간관계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거부아동과 소외아동은 자기지각과 마찬가지로 또래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tterson, et al., 1990). 거

부아동은 또래를 공격적이라고 지각하고(Chen, Rubin, & Sun, 1992), 친한 친구들과 조차도 지속적으로 지지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Chen, Rubin, & Sun, 1992). 특히 거부아동은 대인지각 중 또래지각이 가장 부정적이었고(Bovin & Hymel, 1997), 또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대인예상을 발달시켜 결국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 대인지각과 또래지위의 관계는 어린아동보다는 나이든 아동에게서 그 관계가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Kurdek & Krile, 1982).

그러나 아동의 또래지각이 사회적 역량발달과 상관성이 있다는 보고(Newcomb, Bukowski, & Pattee, 1993)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또래지각에 대한 연구들은 단순히 또래들에게 얼마나 수용되는지와 또래가 보이는 행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에서의 또래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인 지각이 아동의 사회적 선호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의미있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대인지각의 일반화 과정에 대한 정보를 더욱 구체화시킬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62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분석에서는 응답이 부실한 아동을 제외한 603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은 교사들의 평가에 의해 대체로 중류가정의 아동들이 다니는 것으로 판단된 대전지역의 초등학교에서 표집이 이루어졌다.

대상 아동은 남아가 51.9%, 여아가 48.1%였으며, 5학년이 49.3%, 6학년이 50.7%였다. 부모의 학력은 어머니, 아버지 모두 고졸이 각각 55.2%, 3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졸 26.4%, 36.1%였다. 부모의 직업은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64.2%, 아버지는 일반사무직 45.1%, 자영업자 23.5%, 기술·관리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19.9%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들은 사전조사와 연구

절차와 연구변인별 질문지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예비조사를 거쳤으며, 본조사는 1996년 7월 4일부터 약 일주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지각 척도와 가족지각 척도

부모의 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박영애(1995)의 양육행동 척도 중에서 '어머니는 나에게'와 '아버지는 나에게' 척도의 온정·수용요인 3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대인관계를 맺는 아동의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양육요인은 온정·수용이라는 선행연구(Putallaz et al., 1990)에 따른 것이다. 척도의 점수체계는 4점 척도였고, 채점은 각 차원 마다 그 강도가 높아지는데 따라 높은 점수를 주었다.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어머니는 나에게'와 '아버지는 나에게' 각각 .94와 .96이었다.

가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Dubow와 Ulman(1989)이 제작한 사회적 지지 평가 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 : APP) 중 가족에 대한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들이 가족과의 경험에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지 등에 대해 아동 자신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척도의 점수체계는 5점척도로 가족을 지지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주었다.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9이었다.

2) 자기지각 척도

아동은 자신을 어떻게 지각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Rudolph 등(Rudolph, Hammen, & Burge, 1995)이 Cassidy(1990)의 자기지각에 대한 두 가지 차원론적 개념에 근거해서 개발한 자신에 대한 지각 평가 도구(Perceptions of Self Questionnaire : POS)를 문항양호도 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거쳐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지각과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지의 자아에 대한 지각된 가치를 평가하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2이었고 재검사신뢰도는 .85였다.

3) 또래지각 척도

또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서 Rudolph 등(Rudolph, Hammen, & Burge, 1995)의 또래 지각 평가 도구(Perceptions of Peer : POP)를 문항양호도 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거쳐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또래와 관계를 맺는 상황 속에서 또래를 어떻게 지각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79이었고, 재검사신뢰도는 .82였다.

4) 또래지위 평가

또래집단내에서 아동의 상대적 위치를 알아 보고자 또래지명법을 사용하였다. 학급친구들로 부터 지명 받은 수로 Coie 등(Coie, Dodge, & Coppotelli, 1982)의 분류에 따라 대상 아동들의 사회적 선호도와 사회적 영향력 점수를 산출하였다. 학급친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지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질문지에 학급 아동 명단을 동봉하였고, 이를 참조할 것을 일러 두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또래지위에 따른 자가지각 및 대인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과 t-test를 하였고, 대인지각 및 자가지각과 사회적 선호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분석과 Fisher의 z점수 변환을 하였다. 대인지각 및 자가지각이 아

동의 또래지위에 어떠한 양상으로 기여하는가의 매개변인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자가지각 및 대인지각의 또래지위에 따른 차이

남, 여 아동의 또래지위 분포는 인기아동이 전체의 23.8%, 거부아동은 20.6%, 소외아동은 16.7%, 그리고 보통아동은 6.6%로 또래집단의 일반적인 사회성 측정 분포(Master, & Furman, 1981; 1984)와 같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남, 여 아동의 각 또래지위 집단의 분포도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었다.

또래지위에 따른 자가지각 및 대인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양면성아동과 나머지 아동을 제외한 인기, 보통, 거부, 소외아동의 대인지각의 차이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결과 또래지위에 따른 대인지각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또래지각 $F(3,397) = 11.84, p < .001$ 이었다(표 1 참조). 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F(3, 405) = 8.89, p < .001$, 그리고 자기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F(3, 404) = 7.44, p < .001$ 에서 또래지위 집단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가족, 자기 그리고 또래에 대한 지각의 긍정성은 또래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각 지위집단 아동의 대인지각의 차이가 어느 집단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인 가를 살펴보기 위한 t-test 분석결과(표 2 참조).

<표 1> 또래지위에 따른 자가지각 및 대인지각 점수의 일원변량분석

| 변 인 | 변량원 | df | ss | MS | F |
|-------|-----|-----|--------|------|----------|
| 부모/가족 | 집단간 | 3 | 6.28 | 2.02 | 8.89*** |
| | 집단내 | 405 | 95.36 | .24 | |
| 또 래 | 집단간 | 3 | 9.15 | 3.05 | 11.84*** |
| | 집단내 | 397 | 102.18 | .26 | |
| 자 기 | 집단간 | 3 | 4.72 | 1.57 | 7.44*** |
| | 집단내 | 404 | 85.48 | .21 | |

*** $p < .001$

〈표 2〉 또래지위에 따른 자기지각 및 대인지각 점수의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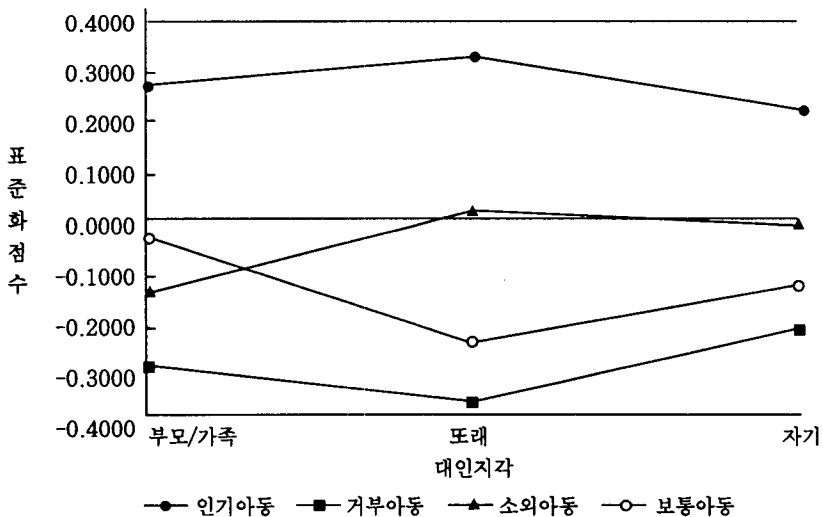
| | 인기 - 거부 | | | | | 인기 - 소외 | | | | | 인기 - 보통 | | | | |
|-------|---------|-----|------|-----|---------|---------|-----|------|-----|---------|---------|-----|------|-----|---------|
| | M | SD | M | SD | t | M | SD | M | SD | t | M | SD | M | SD | t |
| 부모/가족 | 3.65 | .41 | 3.38 | .59 | 4.18*** | 3.65 | .41 | 3.47 | .48 | 3.27*** | 3.65 | .41 | 3.51 | .37 | 2.11* |
| 또래 | 3.11 | .48 | 2.77 | .57 | 5.17*** | 3.11 | .48 | 2.96 | .47 | 2.47* | 3.11 | .48 | 2.84 | .41 | 3.62*** |
| 자기 | 2.97 | .45 | 2.78 | .49 | 3.32** | 2.97 | .45 | 2.87 | .44 | 1.75 | 2.97 | .45 | 2.82 | .38 | 2.12* |
| | 거부 - 소외 | | | | | 거부 - 보통 | | | | | 소외 - 보통 | | | | |
| | M | SD | M | SD | t | M | SD | M | SD | t | M | SD | M | SD | t |
| 부모/가족 | 3.38 | .59 | 3.47 | .48 | 1.07 | 3.38 | .59 | 3.51 | .37 | 1.23 | 3.47 | .48 | 3.51 | .37 | .61 |
| 또래 | 2.77 | .57 | 2.96 | .47 | 2.59* | 2.77 | .57 | 2.84 | .41 | .73 | 2.96 | .47 | 2.84 | .41 | 1.52 |
| 자기 | 2.78 | .50 | 2.87 | .44 | 1.48 | 2.78 | .50 | 2.82 | .38 | .48 | 2.87 | .44 | 2.82 | .38 | .75 |

*p<.05, **p<.01, ***p<.001

인기아동의 부모/가족과 또래지각은 거부아동, 그리고 소외아동과 차이가 있었는데, 인기아동이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자기지각의 경우는 거부아동과 보통아동보다는 유의하게 긍정적이었지만 소외아동과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거부아동은 부모/가족, 또래, 그리고 자기에 대한 지각의 모든 경우에 인기아동보다 부정적으로 지각

하고 있었고, 소외아동과는 또래지각에서만 차이가 발견되어 소외아동이 부모/가족, 그리고 자기에 대한 지각이 거부아동보다 유의하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래지위에 따른 대인지각 및 자기 지각의 평균 표준화 점수를 나타낸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었다.



〈그림 1〉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의 표준화 평균

2. 자기지각 및 대인지각의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기여 양상

자기지각 및 대인지각이 어떠한 양상으로 또래간 선호도에 기여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자기 지각 및 대인지각과 아동이 또래로 부터 받은 긍정적 지명수와 부정적 지명수의 차인 사회적 선호도 점수와 긍정적지명 수와 부정적 지명수의 합인 사회적 영향력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표 3>를 보면 긍정적 지명수와 부정적 지명수의 차를 나타내는 또래간 사회적 선호도(SP)는 자기지각 및 대인지각과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서로 정적 상관이 있으나 그 세부사항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를 통해서 아동들의 또래와의 접촉정도는 사회적 선호도에 비해서 대인지각의 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아는 자기지각 및 각 대인지각에서 사회적 영향력과 고른 수준의 상관을 보인 여아와는 달리 자기지각에서만 상관이 발견되어 대인지각은 남, 여아동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자기지각 및 대인지각의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기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을 통한 경로 분석결과, 남, 여아동의 부모/가족에 대한 지각은 사회적 선호도에 각기 다른 양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사회적 영향력 점수는 또래들과의 보다 양적인 접촉정도에 대한 정보이므로 보

<표 3> 자기지각 및 대인지각과 사회적 측정 점수의 상관분석

(N=603)

| | 사회적 선호도 | | | 사회적 영향력 | | |
|-------|---------|--------|-------|---------|------|------|
|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 부모/가족 | .17*** | .18** | .15* | .11** | .09 | .13* |
| 어머니 | .13** | .16** | .09 | .11** | .10 | .13* |
| 아버지 | .19*** | .17* | .19** | .08 | .06 | .10* |
| 가족 | .14*** | .16** | .12* | .09* | .07 | .11 |
| 또래 | .25*** | .32*** | .17** | .09* | .06 | .12* |
| 자기 | .17*** | .23*** | .12* | .12** | .12* | .11 |

*p<.05, **p<.01, ***p<.001

아동 전체로 볼 때,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사회적 선호도와의 상관이 높았다($z=1.73, p<.05$). 남아는 또래지각($z=2.75, p<.01$), 자기지각($z=1.81, p<.05$), 그리고 어머니 지각($z=1.67, p<.05$)과 사회적 선호도와의 상관이 여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지각과 또래간 사회적 선호도는 유의한 수준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또래들로부터의 여아의 수용정도는 어머니에 대한 지각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지각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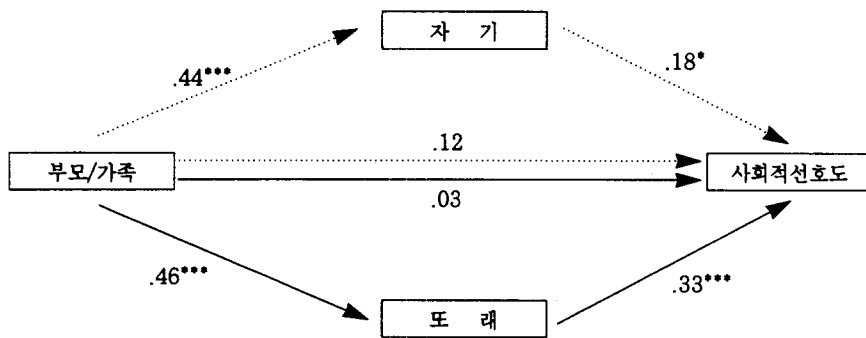
긍정적 지명수와 부정적 지명수의 합을 나타내는 사회적 영향력 점수와 자기지각 및 대인지각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사회적 선호도와와의 상관보다 낮았는데, 이

다 질적인 또래관계(French, 1988)를 나타내는 또래간 사회적 선호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남아의 자기지각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이 발견되었다. 부모/가족에 대한 지각은 자기지각과 사회적 선호도를 각각 19%, 3% 수준에서 유의하게 예측해 주었지만 등식 3에서 부모/가족과 자기지각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부모/가족지각은 자기지각을 통해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참조). 부모와 가족을 온정적, 수용적, 지지적이라고 지각하게 되면 남아는 자신에 대한 가치와 역량을 높게 인식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아동의 사회적 선호도를 높여 주는데 간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남아의 자가지각과 부모/가족지각의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중다 회귀 분석

| 예측변수 | 결 과 | Standardized Beta | p값 | Adjusted R ² |
|----------|--------|-------------------|-------|-------------------------|
| 1. 부모/가족 | 자 기 | .44 | .0001 | .19 |
| 2. 부모/가족 | 사회적선호도 | .19 | .0019 | .03 |
| 3. 부모/가족 | 사회적선호도 | .12 | .0601 | .06 |
| 자기 | | .18 | .0046 | .06 |



p .01, *p<.001. 점선은 자가지각, 실선은 또래지각의 경우임.

〈그림 2〉 남아의 부모/가족, 자기, 또래지각의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경로모델

또래에 대한 남아의 지각도 <표 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선호도에 있어서 부모/가족 변인을 중개해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부모/가족의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3%의 예측력을 지녔던 것에서 부모/가족지각과 또래지각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설명력은 12%로 증가하였고, 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아동의 사회적 선호도에 더 이상 유의한 효과를 지니지 않았다.

즉 또래에 대한 지각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부모/가족에 대한 남아의 지각과 사회적 선호도간의 직접적인 효과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은 반면에, 또래에 대한 남아의 지각을 매개로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만 또래간 사회적 선호도를 유의하게 예측해 주었다(그림 2 참조).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가족에 대한 지각의 긍정성은 또래에 대한 남아의 긍정적인 지각에 영향을 미쳐 이에 따른 결과로서 남아의 사회적 선호도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남아의 부모/가족과 또래지각의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 예측변수 | 결 과 | Standardized Beta | p값 | Adjusted R ² |
|----------|--------|-------------------|-------|-------------------------|
| 1. 부모/가족 | 또 래 | .46 | .0001 | .21 |
| 2. 부모/가족 | 사회적선호도 | .18 | .0019 | .03 |
| 3. 부모/가족 | 사회적선호도 | .03 | .6746 | .12 |
| 또래 | | .33 | .0001 | .12 |

반면에, 여아의 경우는 자기지각의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매개변인의 역할은 발견되지 않았다(표 6 참조). 부모/가족에 대한 여아의 지각이 자기지각에 21%의 예측력을 지녔으나 부모/가족에 대한 지각은 사회적 선호도에 대해 3%의 직접적인 효과만이 나타났다. 이로써 여아는 남아와는 달리 사회적 선호도에 있어서 부모/가족에 대한 지각의 자기지각을 통한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3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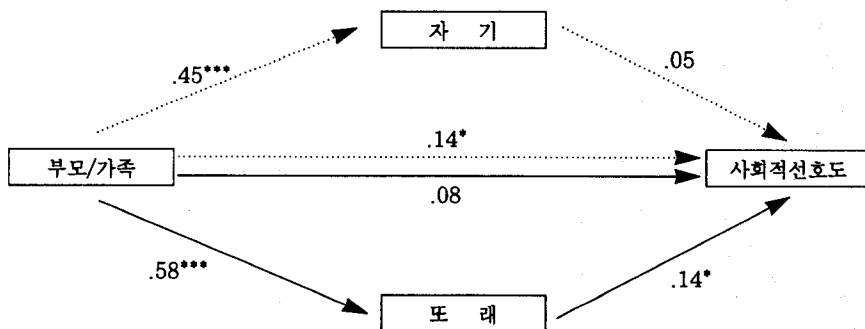
그러나 또래에 대한 여아의 지각은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등식 3에서 부모/가족에 대한 지각에 또래지각을 포함하여 분석하면, 부모/가족에 대한 지각은 사회적 선호도에 더 이상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래지각은 사회적 선호도에 대해 부모/가족의 영향을 중재해 주는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부모/가족에 대한 여아의 수용, 온정, 인정, 지지적이라는 지각은 또래지각으로

<표 6> 여아의 부모/가족과 자기지각의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 예측변수 | 결 과 | Standardized Beta | p값 | Adjusted R ² |
|----------|---------|-------------------|-------|-------------------------|
| 1. 부모/가족 | 자 기 | .45 | .0001 | .21 |
| 2. 부모/가족 | 사회적 선호도 | .16 | .0055 | .03 |
| 3. 부모/가족 | 사회적 선호도 | .14 | .0319 | .03 |
| | 자기 | .05 | .4587 | .03 |

<표 7> 여아의 부모/가족과 또래지각의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 예측변수 | 결 과 | Standardized Beta | p값 | Adjusted R ² |
|----------|---------|-------------------|-------|-------------------------|
| 1. 부모/가족 | 또 래 | .58 | .0001 | .25 |
| 2. 부모/가족 | 사회적 선호도 | .16 | .0055 | .03 |
| 3. 부모/가족 | 사회적 선호도 | .08 | .2254 | .04 |
| | 또래 | .14 | .0373 | .04 |



*p<.05, ***p<.001, 점선은 자기지각, 실선은 또래지각의 경로임

<그림 3> 여아의 부모/가족, 자기, 또래지각의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경로모델

전이되어 여아의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의 분석결과 아동의 부모, 가족, 또래, 그리고 자기지각은 또래지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기여양상도 남, 여아동에 따라, 그리고 지각의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제기되는 논의점은, 아동의 자기지각 및 대인지각에 대한 일관성으로 부모, 가족과의 초기 경험은 또래와 자기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쳐 이는 다시 아동의 사회적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래지위에 따라서 자기지각 및 대인지각의 차이가 모두 나타난 것은 아동이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데 부정적인 대인지각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거부아동은 부모/가족, 또래, 그리고 자기지각의 전 영역에서 다른 집단 아동과 차이를 보이거나 표준화 평균점수가 가장 낮아 가장 부정적인 대인지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선행연구(Safran, 1992)와 일치한 연구결과이다.

소외아동은 자기지각을 제외한 대인지각 영역에서 인기가동보다 부정적이었고, 거부아동과는 부모/가족과 자기지각에서는 차이가 없고 또래지각에서만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또래들에게 거부되거나 소외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아동의 또래에 대한 인지적 평가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과 사회적 선호도의 상관은 아동전체로 볼 때,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지각과 사회적 선호도와와의 상관이 더 높았고, 남아는 어머니지각과, 여아는 아버지지각과 사회적 선호도와와의 상관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족에 대한 지각과 문제해결 행동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박영애와 황옥경, 1997)와 비교해 볼 때 매우 관

심을 끄는 결과로서 대인갈등 상황에서 아동의 행동은 어머니가, 사회적 관계에서는 아버지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부모자녀 관계 중 어느 관계가 자녀의 어떤 영역의 사회화에 보다 긍정적이고도 발전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을 지에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

대인지각의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경로분석에서, 남, 여 아동 모두 또래지각은 부모/가족에 대한 지각의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Rudolph와 그의 동료들(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또래들과 잘 어울릴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되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부모/가족에 대한 지각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였던 유아들은 또래와 놀이할 때 또래를 괴롭히지도 않고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도 않았다는 Sroufe와 Fleeson(1988)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부모와 가족에 대한 온정, 수용, 인정, 지지적이라는 아동의 지각은 또래지각에 영향을 미쳐 또래상황에서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여 결국 아동의 사회적 선호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아의 경우, 사회적 선호도에 있어서 자기지각의 매개변인의 역할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또래관계 속에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아동의 사회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는 Rabiner등(1989)의 주장과 부분적으로 일치한 결과로서 사회적 선호도와 관련되는 한에 있어서는 여아보다 남아의 자기지각은 부모/가족의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남아는 여아에 비해서 타인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내적자아상이나 자기평가와 맞물려 사회적 선호도에 직접 효과를 갖는 것이다. 이로써 부모의 온정, 수용성과 가족과의 지지적인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남아의 자기지각과 또래지각은 남아의 사회적 관계로 확대됨을 알 수 있다.

2. 결론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거부아동의 자기지각 및 대인지각이 인기가동

보다 부정적이다. 소외아동은 자기지각을 제외한 대인지각이 인기아동보다 부정적이며, 거부아동보다는 또래지각에서만 부정적이다. 이는 아동이 부모, 가족, 또래로부터 사랑과 관심,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고, 친구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라고 지각하면 또래로부터 거부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2) 사회적 선호도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지각의 상관이 더 높고, 남아는 어머니에 대한 지각과 여아는 아버지에 대한 지각과 상관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관계중 어느 관계가 자녀의 어떤 영역의 사회화에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는 지에 대해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

3) 또래지각은 남, 여 아동 모두 사회적 선호도에 있어서 부모, 가족과의 경험과 사회적 선호도를 연결시켜 주는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 이는 부모, 가족의 자녀에 대한 사랑, 관심, 지지는 친구들이 자기를 좋아할 것이라는 남, 여 아동의 자기지각과 또래지각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녀 결국 또래들로부터 수용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대인지각 및 자기지각은 사회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 가족과의 경험이 또래관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행동적 차원과 관련해서 한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이러한 범주를 넘어서는 이를 테면, 행동을 야기하게 된 요인을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밝히는 것과 같은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아동의 사회적 관계 연구가 더 이상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주춤했던 국내 연구 상황에서 본 연구는 대인지각의 일반화 경향과 또래역량과 연결되는 아동의 내재화된 지각 체계의 흐름을 탐색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대인지각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아동의 대인지각에 따라서 또래역량은 차이가 있고, 또래 역량발달에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각기 다른 영향이 확인됨으로써 또래역량의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차별적인 접근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모, 가족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또 다른 대인지

각 뿐만 아니라 또래역량을 발달시키는 근원적인 요소라고 보았을 때, 추후연구에서는 대인지각의 발달적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하기 위해서 유아기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부모와 가족과의 경험이 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양상으로 효과를 갖는 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영애, 황옥경(1997). 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족지지와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5권 1호. 225-237.
- 정미자(1995). 아동의 또래수용도와 관련변인간의 인과모형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ldwin, M. W.(1992). Relational schemas and the processing of social informat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2, No. 3, 461-484.
- Bell-Dolan, D. J., Foster, S. L., & Sikra, D. M. (1989). Effects of sociometric testing on children's behavior and loneliness in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5, 2, 306-311.
- Black, B., & Logan, A. (1995). Links between communication patterns in mother-child, father-child, and child-peer interactions and children's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66, 255-271.
- Boulton, M. J., & Smith, P. K. (1994). Bully/victim problems in middle-school children: Stability, self-perceived competence, peer perceptions, and peer accept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15-329.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s*, NY: Basic.
- Cassidy, J. (1990).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in the study of attachment and the self in young children. In M. Greenberg,

-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pp. 87-11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ssidy, J., Parke, R. D., Butkovsky, L., & Braungart, J. M. (1992). Family-peer connections: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557-570.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 52-64
- Elicker, J., Englund, M., & Sroufe, L. A. (1992). Prediction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D. Parke, & G. W.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Feldman, E., & Dodge, K. A. (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sociometric status: Sex, age, and situational effec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211-227.
- Frech, D. C. (1988). Heterogeneity of peer-rejected boys: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subtypes. *Child Development*, 59, 976-985.
- Hart, C. H., Dewolf, D. M., Wozniak, P., & Burts, D. C. (1992). Maternal and parental disciplinary styles: Relations with preschooler's playground behavioral orientations and peer status. *Child Development*, 63, 879-892.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E. M. Hetherington (Ed.), P. H. Musse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103-196). New York: Wiley.
- Kurdek, L. A. & Krile, D. (1982). A developmental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peer acceptance and both interpersonal understanding and perceived social self-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3, 1485-1491.
- Ladd, G. W. (1991). Family-peer relations during childhood: Pathways to competence and patholog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07-314.
- Ladd, G. W., & Golter, B. S. (1988). Parents' management of preschooler's peer relations: Is it related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09-117.
- MacKinnon-Lewis, C., Volling, B. L., Lamb, M. E., Dechman, K., Rabiner, D., & Curter, M. E. (1994). A cross-contextual analysis of boy's social competence: From family to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0, 3, 325-333.
- Newcomb, A. F., Bukowski, W. M., & Pattee, L. (1993). Children's peer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of popular, rejected, neglected, controversial, and average sociometric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13, 99-128.
- Patterson, C. J., & Kupersmidt, J. B. & Griesler, P. C. (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49.
- Putallaz, M., & Heflin, A. H. (1990). Parent-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189-216).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biner, D., & Coie, J. (1989). Effect of expectancy inductions on rejected children's acceptance by unfamiliar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 450-457.
- Renshaw, P. D., & Asher, S. R. (1983). Children's

- goal and strategies for social interaction. *Merrill-Palmer Quarterly*, 29, 353-374.
- Richard, M. H. Gitelson, I. B. Peterson, A. C. & Hurtig, A. L. (1991). Adolescent personality in girls and boys: The role of mothers and fathe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5, 65-81.
- Rudolph, K. D. Hammen, C., & Burge, D. (1995). Interpersonal functioning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ldhood: Addressing the issues of specificity and comorbid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2, 3, 355-371.
- Safran, J. D. (1990). Towards a refinement of cognitive therapy in light of interpersonal theory: I Theory.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 87-105.
- Sroufe, L. A., & Fleeson, J. (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 Z. Rubin (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pp. 51-7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Westen, D. (1991). Social cognition and object rel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09, 429-455.